

2021

충청권 문화다양성 이야기 모음집
저 편에서, 4인의 시선



2021 무지개다리사업

충청권 문화다양성 이야기 모음집
— 저 편에서, 4인의 시선

충청권 지역별 주체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문화다양성' 관점의
이야기 모음집으로 충청권 문화재단(세종, 대전, 충남, 충북)
문화다양성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CONTENTS

01. 무지개다리사업

- 문화다양성 및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 무지개다리사업
- 충청권 문화다양성 협력사업
- 지역별 무지개다리사업 프로그램

02. 전문가의 시선

- 충청권 지역 특징 및 문화다양성 활동의 지역간 연계 · 협력 /
장현선 장애파트너스그룹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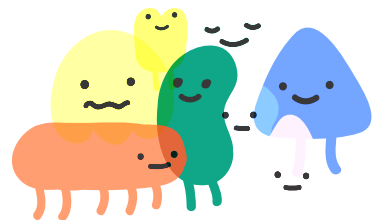
03. 우리의 시선

- 세종 /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과 나아갈 길_최서인
- 대전 / 한국은 나의 제2의 고향, 한국 생활 적응기_홍아리나
- 충남 / 충남 청년이 바라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화적 시선_임대건
- 충북 / “인권, 개나 줘버려!”_김응필

문화다양성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을 인류의 공동 유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해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화다양성, 차이를 스스럼없이 받아들이고 즐길 줄 아는 수용의
마음과 태도를 키우는 것**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UN이 지정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5월 21일)부터 일주일간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문화의 다름과 차이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문화다양성에 대해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무지개다리사업

다양한 문화 주체들과 다양한 방식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를 위한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의 대표 사업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진행되고 있으며,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찾아가고자 하고자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문화다양성 협력사업

충청권 문화재단(세종, 대전, 충남, 충북)은 지난 2018년 문화다양성 정책 포럼을 시작으로 매해 충청권 지역의 문화다양성 이슈 발굴 및 지역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지역별 다양한 주체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문화다양성 이야기 모음집과 “지역별 관계자가 전하는 문화다양성 한 가지 다짐”을 담은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

사업목표

- 문화다양성 과제 실현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 운영기반 구축
- 다양성 이슈 발굴 및 지역 정체성·공동체성 강화

추진방향

- 문화다양성 거버넌스형 실행체계 구축 및 문화다양성 가치 반영
 - 시민 주도의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및 교류 확대
- 지역특화 프로그램 확장 및 다양한 소수문화권 재발견

프로그램 소개

사업명: 문화만사성 : 다름이 다음을 만듭니다.

구분	프로그램	내용
기반마련	문화다양성 운영준비위원회	지역의 문화다양성 과제 발굴 및 실행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형 위원회
	시민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세종시의 문화다양성 환경 및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충청권 문화다양성 협력사업	충청권 문화다양성 이슈 발굴 및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충청권 문화재단(세종, 충북, 충남, 대전 등) 공동 협력 프로젝트
인식및가치확산	워킹그룹별 시민문화다양성 프로그램(7개)	세종시 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맞춤형 문화다양성 참여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관계자 및 참여자 대상 실시되는 문화다양성 기본 교육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문화예술의 다양성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토크콘서트, 거리 퍼포먼스, 책 소개 이벤트 등이 펼쳐지는 시민참여 행사
	세종시 문화다양성 이카이프(SNS)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자 간 소통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 전용 SNS
문화권 보장	세종시 다양성발굴 인터뷰 프로젝트	세종시에 살아가는 이주자들 인터뷰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를 새롭게 발견해나가는 문화자원 파악 프로젝트
상호교류 지원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협력하여 문화다양성을 표현하는 작품 제작 및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는 매체(버스 등)를 통해 선보이는 공공예술 프로젝트

[대전문화재단]

사업목표

- 지역 내 문화다양성 인식 증진 및 가치 확산 환경 구축
- 문화예술을 통한 소수주체의 소통 및 표현, 상호문화 이해 기회 확대

추진방향

- 문화다양성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공공·민간 협력 체계 등 네트워킹 고도화
- 지역 특화 문화다양성 브랜드 특화 사업 일상화 및 내실화
- 지역 내 중장기적 문화다양성 정책 기반 마련

프로그램 소개

사 업 명: 우리다함께

구분	프로그램	내용
인식 및 가치확산	우리다함께 아에이오우 어게인	2020년도 시민공모 합창곡 및 참여 주체별 문화다양성 메시지를 담은 합창(주) 릴레이 캠페인
	문화다양성 아카데미	문화다양성 개념 및 가치 등 올바른 인식 부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초, 심화) 2회
기반마련	우리다함께 이음 모임	지역 내 문화다양성을 중심으로 상호 문화 이해 및 중장기적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협의·간담회 운영
문화권 보장	우리다함께 아트인(IN)	예술(음악, 미술, 연극, 전통) 및 문화산업(영화,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장르 및 주체를 대상으로 한 예술창작(표현)활동 매칭 지원
상호교류 지원	우리다함께 아트온(ON)	다양한 주체 간 서로의 일상을 관찰 해보는 '내가 바라본 ○○○의 일상' 프로젝트, 영상 촬영 및 콘텐츠 제작
인식 및 가치확산	충청권 주관기관 공동사업	충청권 내 다양한 문화다양성 관계자 및 주체자(충청권 문화재단)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및 확산을 위한 이야기 모음집 제작 및 핸드 인 핸드 '한가지 다짐' 선언 캠페인 영상 제작/협력 프로젝트

[충남문화재단]

사업목표

- 1) 문화를 배척하는 배타주의 인식 개선 및 가치 확산 추진
- 道 내 외부 · 소수 문화에 대한 배타적 인식 개선 및 문화다양성에 대한 가치 확산
- 2) 문화다양성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자생적 활동 환경 조성
- 지역 내 협력단체와 함께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후 자생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3) 충남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기반 지역 맞춤형 문화다양성 활동
- 충청남도 조례(문화다양성)를 기반으로 문화다양성 다각화 및 활동 가속화

추진방향

- 1) 충남 도내 문화다양성 협력단체 등을 활용한 지역문화 프로그램 추진
- 5개의 프로그램을 지역 협력단체와 함께 협업하여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활동
- 2) 충남 도내 · 외 문화 주체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문화다양성 교류의 장 마련
- 프로그램의 주체(협력단체)와 더불어 지역내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여러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 강화하여 문화다양성 교류 시도

기대효과

- 1) 문화지역 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및 인식 개선
- 道내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및 캠페인을 통해 도민들에게 문화다양성을 향유하고 이를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 2) 道 내 여러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향후 활동 계획
- 道내 문화다양성 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를 통해 자생적 문화다양성 활동의 장 마련
- 3) 문화다양성 활동 다각화
- 道 조례를 기반으로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시작으로 향후 문화다양성 활동 범위 증가와 더불어 진행 방향의 다각화

프로그램 소개

사 업 명: 2021 무지개다리사업 - 서로, 소리 -

구분	프로그램	내용
다양성 기반 구축형	문화다양성 칼럼	문화다양성 관련 전문가 칼럼기고(뉴스레터 기고 및 칼럼집 제작)
	문화다양성 협력데스크	지역 문화다양성 협력단체 및 전문가 견해를 통한 회의 진행 (협력위원회, 라운드테이블, 정책데스크, 좌담회 등)
다양성 가치 발굴형	문화다양성 영화제 프로젝트	영화 상영을 통한 문화다양성에 대한 쉬운 해설을 도민에게 향유 및 제공
	에코 페미니즘 프로젝트	학교 밖, 소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문예교육을 통해 환경이슈와 여성해방을 주제로 에코 페미니즘 캠프 프로그램 진행
	중년 삶의 축제 프로젝트	퇴직, 불혹, 등 지역 내 중년들의 문화다양성 전시기획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 존중감 회복
	청년 문화다양성 프로젝트	대학생 및 청년들의 지역 내 인권, 문화예술 강좌 활동을 직접 제안하고 기획 운영
	농촌 팜파티 프로젝트	문화 소외지역인 농촌마을에서 이주외국인, 거주민 등 함께 어우러져 팜파티를 기획, 영상기록 및 지역내 문화다양성 홍보 진행
다양성 가치 확산형	문화 다양성 도서캠페인	문화다양성 위원회 추천도서 배포를 통한 관련 홍보
	문화 다양성 홍보캠페인	카드뉴스 제작 등 온·오프라인 홍보
	문화다양성 아카데미	도내 문화공간을 활용, 문화다양성 관련 예술가, 인문학자 등 명사 초청을 통한 도민 문화다양성 인식확산 강연진행

[충북문화재단]

사업목표

-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증진 및 확산하기 위한 시책 강구
- 지역 내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문화다양성 인식확산과 실천적 논의구조 기반구축

추진방향

- 충북권 문화다양성 가치실현을 위한 관계기관 연계
- 문화다양성 주체가 자생적 활동발판 마련을 통한 가치확산 및 인식개선
-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기대효과

- 문화다양성 인식확산을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확장 및 홍보
- 참여자 접근성 제고 및 프로그램 이용 확산을 위한 동시 운영
- 문화다양성 자료의 집적화

프로그램 소개

- 사 업 명: 2021무지개다리사업 <오색빛깔 무지개>

구분	프로그램	내용
정책활동	조약돌 네트워크	지역 내 문화다양성의 중장기적인 방향 제시
홍보 및 캠페인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문화다양성 주간 동안 도민에게 문화다양성 이해증진 도모 및 가치확산
교육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아카데미	문화다양성 이해력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매개자 양성과정	삶 속에서 문화다양성 인식확산을 위한 실험실
행사	문화다양성 성과공유 포럼 페스타'차.차.차'	2021문화다양성 무지개다리 성과공유회
자료집	충북문화다양성사업자료구축	2021무지개다리사업에 대한 자료의 집적화



[2020년도 무지개다리 사업 진행사진]

세종시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충남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전문가 시선]

충청권 지역 특징 및 문화다양성 활동의 지역간 연계 · 협력

장현선_(주)장애파트너스그룹 대표

충청권 문화다양성 포럼은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기초 · 광역 문화재단 무지개다리 사업 담당자들의 노력으로 권역별 지지와 연대를 통한 전국의 문화다양성 확산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충청권 문화다양성 포럼은 2018년 1회 포럼을 시작으로 2019년 2회의 포럼을 운영해 왔으나,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대면 포럼 개최가 어려워 자료집을 통해 현안을 공유하는 것에 집중하였고, 2021년 현재에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의 영향권 안에 있으며, 충청권의 문화다양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지면을 통해 가지게 되었다.

2018년 1차 포럼은 충청지역 4개 재단(충남, 충북, 세종, 청주)이 협력을 공표하고 문화다양성 정책과 무지개다리사업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부산과 청주의 조례제정 및 문화다양성 사업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2019년 2차 포럼 “또 그리고 봄. 청. 춘”에서는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의 필요성, 부천의 문화다양성 조례 도입의 과정과 어려움에 대한 공유와 충청권의 문화다양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되었다.

2020년 3차 포럼은 코로나로 인해 개최되지는 못했으나, 매년 돌아오는 문화다양성의 날(5월 21일)에 맞추어 충청권 4개 재단(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협력으로 ‘2020 충청권 문화다양성 리서치북’으로 제작되어 배포되었다. 2020년 리서치북은 문화다양성 사업의 정책과 변화, 대중문화, 장애인예술 등 문화다양성이 주목해야 하는 영역에 대한 주목과 더불어 충남, 대전, 세종, 충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주목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원고로 구성되었다.

필자는 2018년과 2019년 포럼에는 사회자로, 2020년 충청권 문화다양성 리서치북에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문화다양성’이라는 제목으로 필진에 참여하였다. 해당 원고에서 필자는 문화다양성은 지역이라는 넓고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고 있기에 지역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인구구성의 특징으로 지역을 이해하는 기초 작업이 필요하며, 좀 더 세부적 이슈 발굴을 위해 지역 중심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충청권은 광역으로 대전 · 세종 등의 시 단위와 충남 · 충북의 도 단위 광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단위 각종 통계자료들은 정부의 데이터 공개 원칙과 코로나 이후 더 강조되고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자료들이 전국 단위가 아닌 최소 광역단위로 오픈되고 있다.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조사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이미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우리 지역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구통계, 즉,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의 구조와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전수를 조사하고 있는 인구센서스 자료를 통해 활용할 수 있으며,
 경제현황 및 외국인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데이터 또한 행정안전부, 통일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020년 충청권 문화다양성 리서치북에서 필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같은 충청권역에 위치해 있더라도 지역적
 상황은 다르다. 우선 충남과 충북과 같이 도 단위 광역지자체와 시 단위 광역지자체는 도시의 구성 다양성에서
 차이가 있다. 광역시의 경우 좁은 면적에 인구가 밀집해 있으며, 이에 비해 광역도는 인구밀집도가 낮은 편이다.
 대전의 경우 거주 인구가 150만명으로 추산되며, 인구밀도가 높은 편인 반면, 세종은 거주 인구도 35만명 정도로 작으며,
 광역시 단위에서 인구밀도가 아직까지 낮은 특징을 보인다.
 충남과 충북도 또한 인구 밀도가 대전의 약 1/10 이하로 낮아, 다양한 층을 대면할 기회가 적다.

구 분	2020년	
	인구 (천명)	인구밀도 (명/k㎡)
전 국	51,781	516
서울특별시	9,602	15,865
부산광역시	3,344	4,342
대구광역시	2,419	2,738
인천광역시	2,951	2,770
광주광역시	1,488	2,969
대전광역시	1,500	2,780
울산광역시	1,140	1,073
세종특별자치시	349	750
경기도	13,405	1,315
강원도	1,515	90
충청북도	1,632	220
충청남도	2,204	267
전라북도	1,792	222
전라남도	1,764	143
경상북도	2,655	140
경상남도	3,350	318
제주특별자치도	670	362

출처: 통계청「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7-2047」, 국토교통부「지적통계」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차이가 더 잘 보인다.

세종의 경우 신도시로 구성되어 15~64세의 연령구성비가 매우 높으며, 특히 타 지역에 비해 15세 미만 인구의 구성비가 매우 높다(20.1%). 반면, 충북과 충남은 65세 이상 고연령층의 구성비가 15% 이상으로 고령화 사회(65세 인구구성비 15% 이상)에 접어들었으며, 초고령사회(65세 인구구성비 20% 이상)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세종의 15세 미만 연령대 구성비가 높다는 것은 아동청소년에 집중된 도시기능이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교육 및 복지 영역에서의 활동이 필요하며, 기대된다. 반면, 충북과 충남의 도 지역은 광역 내 시군구간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도내의 상황이 모두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세대 간의 교류와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구역별	연령별	2016년		
		인구(내국인) (명)	남자 (명)	여자 (명)
전 국	15세미만	6,768,338	3,490,366	3,277,972
	15~64세	36,312,340	18,528,089	17,784,251
	65세이상	6,775,118	2,863,065	3,912,053
	평균연령	40.9	39.7	42.1
대전광역시	15세미만	215,110	111,278	103,832
	15~64세	1,130,000	577,285	552,715
	65세이상	170,648	73,186	97,462
	평균연령	39.2	38.1	40.3
세종특별자치시	15세미만	47,856	24,276	23,580
	15~64세	166,956	85,939	81,017
	65세이상	22,860	9,550	13,310
	평균연령	36.1	35.3	36.9
충청북도	15세미만	211,633	109,208	102,425
	15~64세	1,112,738	579,486	533,252
	65세이상	234,132	97,130	137,002
	평균연령	41.5	40.1	42.9
충청남도	15세미만	290,688	149,944	140,744
	15~64세	1,425,574	751,357	674,217
	65세이상	338,771	141,748	197,023
	평균연령	41.6	40.2	43.1

출처:통계청,「인구총조사」

그렇다면 경제적 상황은 어떠한가? 지역내 총생산에서 충남이 전국에서 울산, 서울의 순을 이은 3위의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총소득 또한 높으나, 1인당 소득 및 소비에서는 급격히 낮아진다. 또한, 기초수급자 보장 가구수 또한 충북과 충남도가 지역 가구수 대비 높아, 생산과 소비의 규모는 크지만 경제적 수준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의 경우 광역시의 특징인 도시 빈민의 수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이고,

세종은 총생산과 소비 모두에서 높은 편이며,

기초생활 보장 가구수 또한 작아 소득수준이 상향평준화 되어 있는 지역적 특징을 보인다.

시도별	2019 p)				2019년
	1인당지역내총생산	1인당지역총소득	1인당개인소득	1인당민간소비	기초생활보장가구수
전 국	37,208	37,530	20,400	17,962	1,281,759
서울특별시	44,865	49,121	23,440	21,891	2221,695
부산광역시	27,409	29,388	19,680	18,030	123,160
대구광역시	23,744	27,798	19,210	17,850	79,823
인천광역시	30,425	32,571	19,332	16,451	80,450
광주광역시	27,548	30,964	20,532	18,231	47,619
대전광역시	28,364	31,548	20,498	18,025	38,785
울산광역시	65,352	54,969	22,550	18,482	18,634
세종특별자치시	35,826	36,983	19,789	16,762	3,505
경기도	36,133	38,466	20,482	17,399	222,658
강원도	32,061	29,392	18,997	16,811	49,449
충청북도	42,653	34,484	18,823	15,802	41,254
충청남도	52,402	40,953	18,955	16,037	46,860
전라북도	28,740	28,260	18,725	16,022	68,993
전라남도	43,323	35,532	18,711	16,104	59,208
경상북도	40,272	34,873	18,611	16,217	79,261
경상남도	33,690	32,140	18,939	16,426	84,804
제주특별자치도	30,720	30,834	18,734	16,953	15,601

출처: 통계청, 「지역소득」,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지역 인구구성에서 외국인 주민의 비율을 통해 인종적 다양성에 대해 확인해 보면, 충남과 충북도의 경우 전체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전체 거주 인구대비 1.62%로 전국 1.02%에 비해 약 0.6%p 더 높아, 외국인 근로자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 및 주거 환경의 열악함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여성 외국인 근로자의 성희롱 · 성폭력에 대한 노출 또한 사회적 문제이다. 타 지역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참고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해당 근로자가 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거나 이동의 동선이 한정되어, 실제로 지역주민과 마주치거나 교류할 기회가 없고, 주민들은 높은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을 체감한 상태에서 교류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들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와 문화적 거리감으로 인해 지역주민으로 포용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감지되고 있다. 높은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은 지역내 총생산이 높은 충남과 충북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한 경제적 논리로 출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이들과의 교류의 단절은 반대로 지역사회의 통합과 교류에 대한 단절시키는 장애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경제적 · 문화적으로 다른 계층과의 교류 단절이 향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갈등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주민과의 문화를 통한 교류협력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경제적 활동이라는 점에 충남 · 충북의 지역사회가 주목해야 한다.

반면, 외국인 주민수 비율이 높지 않은 대전의 경우, 유학생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대전지역의 대학들은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감소하는 학생 수를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해 왔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역 대학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본국에 귀국하지 않고 한국에 정착할 경우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가능성 또한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과 지역과의 소통과 교류 또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필요성과 국제화의 큰 흐름에서 보았을 때, 다른 문화권을 받아들이는 시발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대전의 대학들이 최근 노력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복지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은 유학생들만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이들이 지역사회와 충분히 교류하여 지역사회에는 다른 문화를 포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방향의 창조를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시도별	인구대비 외국인 분류별 비율 (2018년 기준)								
	외국인주민 전체	한국국적 미취득자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전 국	3.98 %	3.20 %	1.02 %	0.32 %	0.28 %	0.57 %	1.00 %	0.34 %	0.44 %
서울특별시	4.62 %	3.87 %	0.83 %	0.34 %	0.52 %	0.96 %	1.22 %	0.43 %	0.31 %
부산광역시	2.11 %	1.63 %	0.44 %	0.20 %	0.33 %	0.12 %	0.54 %	0.17 %	0.31 %
대구광역시	1.92 %	1.44 %	0.40 %	0.21 %	0.17 %	0.13 %	0.53 %	0.16 %	0.32 %
인천광역시	3.94 %	3.01 %	0.87 %	0.37 %	0.14 %	0.59 %	1.05 %	0.46 %	0.47 %
광주광역시	2.60 %	2.00 %	0.50 %	0.23 %	0.35 %	0.19 %	0.73 %	0.20 %	0.39 %
대전광역시	2.06 %	1.51 %	0.19 %	0.22 %	0.43 %	0.12 %	0.55 %	0.19 %	0.36 %
울산광역시	3.06 %	2.36 %	0.77 %	0.29 %	0.13 %	0.43 %	0.75 %	0.26 %	0.44 %
세종특별자치시	2.62 %	2.08 %	0.64 %	0.24 %	0.33 %	0.26 %	0.60 %	0.19 %	0.35 %
경기도	5.13 %	4.26 %	1.57 %	0.38 %	0.15 %	0.91 %	1.26 %	0.44 %	0.44 %
강원도	2.28 %	1.59 %	0.43 %	0.24 %	0.28 %	0.12 %	0.52 %	0.23 %	0.46 %
충청북도	4.23 %	3.38 %	1.25 %	0.33 %	0.24 %	0.55 %	1.02 %	0.32 %	0.54 %
충청남도	5.37 %	4.39 %	1.62 %	0.39 %	0.33 %	0.78 %	1.28 %	0.36 %	0.62 %
전라북도	3.08 %	2.15 %	0.60 %	0.33 %	0.39 %	0.12 %	0.72 %	0.29 %	0.64 %
전라남도	3.44 %	2.37 %	0.99 %	0.36 %	0.12 %	0.13 %	0.78 %	0.31 %	0.76 %
경상북도	3.55 %	2.77 %	1.00 %	0.29 %	0.37 %	0.22 %	0.89 %	0.25 %	0.53 %
경상남도	3.70 %	2.91 %	1.30 %	0.30 %	0.09 %	0.28 %	0.94 %	0.27 %	0.52 %
제주특별자치도	4.71 %	3.84 %	1.53 %	0.40 %	0.29 %	0.31 %	1.32 %	0.29 %	0.59 %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지금까지 지역의 현황을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살펴보았다.

문화다양성은 하나의 문화권이 다른 문화권을 만났을 때, 해당 사회가 가지고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이는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의견과 이슈가 충돌할 때 다시 한번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다양성이 포괄해야 하는 영역은 문화권이 다른 외국인에 대한 시각과 포용력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양함을 받아들이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그렇기에 문화다양성 사업에 임하는 지역의 문화재단은 문화를 예술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이슈와 연결하고 이를 지역사회 내에서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충청권의 4개 문화재단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고민을 공유하는 작업을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반면, 지역의 사회갈등 및 이슈를 찾아나가는 과정 중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되, 숫자에만 집착하여 특정 이슈와 계층에만 국한될 경우, 지역 내에 존재하는 소수자(숫자의 구성비가 낮은 층)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 또한 내포하게 된다. 지역의 현안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발하되, 데이터에서 소수에 해당하는 집단과 분류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놓쳐서는 안 된다.

따라서 충청권의 문화다양성 사업을 운영하는 당진과 충주 지역 기관을 포괄하여 지역 간의 프로젝트 교류로 이러한 논의들을 확장하여야 한다. 우리 지역의 이슈에서 출발하여 충청권, 더 넓게는 타 권역까지 협력하고자 하는 실제 사업의 영역 확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와 실제 사업의 운영은 지역사회의 포용력을 높여나가는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점에서 충청권의 문화다양성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를 응원한다.

우리의 시선①

[세종시문화재단]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과 나아갈 길

최서인_해밀중학교

1.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나의 활동 기록

(1) 'Change 915' 서명운동(2019.11.14.~2019.12.18.)

내가 아동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학교 프로젝트 과제 덕분이었다. 주제를 찾던 중 우연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캠페인을 발견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당연스럽게 생각되던 '훈육'도 그 방법에 따라 아동의 입장에선 달리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캠페인 'Change 915'가 매우 신선하게 느껴졌다.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부모님은 내게 늘 자애로우셨으나 가끔 엄하게 야단치시는 경우가 있었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셨다.

물론 회초리까지 들었던 경우는 내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라고 늘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그 당시 나의 행동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더욱이 스스로 충분히 조심하고 있다고 믿었었기에 부모님의 체벌에 온전히 동의할 수 없었던 기억이 났다. 그 당시엔 사랑하는 엄마가 나를 때리셨다는 사실이 충격이기도 했고 그냥 엄하게 꾸짖을 수도 있으셨을텐데 라는 생각에 조금은 억울하기도 했다.

물론 세상 모든 부모님의 훈육이 다 위험한 것은 아니다.(나의 부모님도 무분별하게 체벌을 하셨던 분들은 아니었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지나면서부터는 더욱이 단 한번도 맞아본 적이 없다) 그러나 어른들 중심의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아이들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더욱이 훈육과 학대의 구분이 모호해질 가능성 때문에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캠페인 'Change 915'를 열렬하게 지원하고 싶어졌다.

나는 곧바로 프로젝트를 함께할 친구들과 행동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Change 915'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홍보물(포스터, 홍보용 볼펜 등) 제작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가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거리에서 만나는 낯선 어른들께 캠페인을 알리고 서명을 받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처음엔 말을 거는 것도 쑥스러웠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한 달간 노력한 결과 약 640명에게서 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

일자별 서명운동 추진 현황			
날 짜	장 소	서명해 준 인원	홍보 대상 인원
11/14	세종국립도서관	30	96
11/20	아름동 종합복지센터	35	108
11/22	새롬초등학교 후문	55	160
11/27	새롬동 주민센터	40	124
12/03	새롬중학교	160	170
12/04	산솔동 종합복지센터	60	80
12/06	새롬동 종합복지센터	45	70
12/11	한솔동 종합복지센터	35	60
12/13	정부 2청사 근처	40	77
12/18	오송역/서울역	140	374
계		640 (명)	1,319 (명)

(2) 민법 제915조 삭제를 위한 기자회견(2020.01.13.)



우리가 진행했던 서명운동을 계기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연이 닿아 「민법제915조(징계권 조항)삭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하게 되었다. 여러 관계자들과 기자들 앞에서 아들은 스스로의 판단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이며,체벌은 훈육이 아닌 악습일 뿐이므로 그 대를 지금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SBS스페셜’ 인터뷰(인터뷰 2020.7.8., 방영 8.9.)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아동 인권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관계로 ‘SBS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내 생애에 TV프로그램 인터뷰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아동인권을 확립할 수 있다면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흔쾌히 응했다.



<인터뷰 내용>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체벌과 같은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이 아닌 따뜻한 말과 사랑으로도 충분히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습니다. 들어주고,인내하고,기다리는 어른의 모습으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지켜주세요.

(4) 문화다양성 교육(202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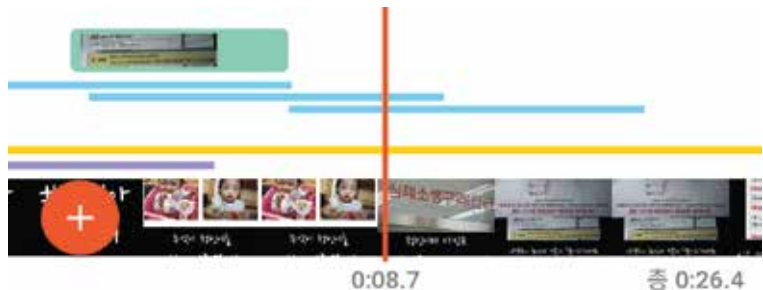
세종시문화재단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을 받았다. 인종에 대한 다양성, 문화에 대한 다양성, 개인에 대한 다양성 등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성 존중이 더 나아가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문화다양성 교육에 참여했다. ‘다름’이 ‘다음’을 만듭니다라는 주제로 작품을 제작했다. 작품은 2020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세종시 버스 990번과 300번에 게시되었다.



<‘다양성 존중’을 주제로한 작품>

(5) 계속되는 캠페인_#정인아_미안해 영상 제작(2021.1.15.)

사회 각계 각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되었다. 특히 ‘정인아 사건’은 양부모가 입양한 아이를 장기간 심하게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었다. 두 돌도 안 된 아이가 죽은 안타까운 사건을 널리 알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영상 제작 자료>

2. 기록을 통해 본 나의 생각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민법」 제915조(징계권)가 삭제되었고
(2021.1.26.)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는 등 일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어디선가 계속되고 있다. 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를 보완해도 아동학대가 계속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부모가 아이를 소유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아이를 한 명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아이의 생각이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고 수용해 준다면
아동학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지역 · 언어 · 생활습관 등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생각의 다양성 등을
수용한다면 어른이 우위에 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닌 생각의 차이를 조정해 나가게 되어 학대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깊어질 때 우리의 사회는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나는 앞서 해왔던 활동들을 시작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다양성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보게 되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무심코 지나칠 뻔한 일들을 내 손으로 바뀌어나는 과정을 통해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그린라이터로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각하고 활동하며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 정말 보람있고 뿌듯하였다. 특히 그 동안의 활동들(서명운동, 포스터 제작, 기자회견 등)이 밑거름이 되어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 더 나아가 ‘문화다양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그 동안의 고민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
같아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갈 길은 아직 멀다. 그럼에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리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 노력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문화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 이를 기반으로 사회의 약자인 아동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함께 한다면
지금의 아동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된 사회는 분명 더 나은 모습일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시선②

[대전문화재단]

한국은 나의 제2의 고향, 한국 생활 적응기

홍아리나_대전 H&H가족통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프리랜서 영어 교사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과정은 삶에 있어서 누구나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거주하는 도시와 집이 바뀌거나, 더욱이 삶의 터전이었던 국가나 대륙을 이동해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고자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으로 이주 한 것은 제 인생에서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저는 2019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은 제 할머니의 나라였고, 그래서 한국이 아주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동안 책과 드라마에서만 보았던 한국은 저와 제 가족들에게 완벽한 나라로 보였고,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열정과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고, 한국에 온 것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언어에 대한 장벽',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에 오기 전부터 스스로 무단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상점에 가거나 음식을 주문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또한 어려웠지만 더 큰 '두려움'은 저에게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항상 잘 도와줬지만 그래도 한국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키르기스어와 한국어는 매우 비슷합니다. 문장 구조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키르기스 사람들은 한국어를 꽤 쉽고 빠르게 배웁니다. 하지만 저는 러시아어만 할 수 있었고, 오래 전 키르기스스탄으로 이주한 할머니만 한국어를 조금 기억하고 계시는 뿐이었습니다. 러시아어는 한국어와 확연히 달라서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터라 어릴 때부터 여러 언어를 배웠는데, 제게는 한국말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문법, 단어, 독해, 높임말 모두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속상하고, 제가 어려웠던 것은 저의 뿌리 일환인 '한국어'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부끄러움으로 느껴졌습니다.

고려인이 처음 러시아에 정착했을 때 그들의 전통과 언어를 간신히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곧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전통과 문화, 언어는 점차 잊혀지기 시작했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많은 부분을 잃었습니다. 몇몇 만이 전통을 지키는데 성공했지만 매우 미비한 부분으로서, 이 또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제가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있지만, 과거는 없습니다. 한국에 가면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적취득!, 나의 답을 찾아서

최근 지역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다소 힘들지만너무 재미있었습니다. 3단계 후에는 한국어와 문화에 대해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많이 찾고, 한국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서서히 사라지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지역 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저와 같은 외국인들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며, 프로그램 후 외국인과 한국인 등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생활패턴

제가 태어난 키르기스스탄은 옛날 소련의 한 공화국이었다가 1991년에 독립한 나라로 한국보다 면적도, 인구도 적은 나라입니다. 기후는 매우 건조하고 산이 많은 편으로생활 방식도 한국과 참 많이 다릅니다. 한국 생활을 하며 그 중 가장 고향과 다르다고 느끼는 점은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빨리 걷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더 빠른 것이 낫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디든지 서둘러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빨리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걸었더니 꼭 높은 산을 등산한 것 같았습니다. 늦은 오후쯤 되자 다리와 온 몸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는 '느림, 여유'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례로 생일이나 결혼식의 경우에도 한 시간 이상 늦게 가는 것이 정상인데, 이는 초대받는 사람이 빨리 가면, 주최한 분들이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키르기스스탄 사람들은 장례식에만 늦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일을 시작할 때까지도 이러한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 때는 제가 한국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시기라, 동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느끼며,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어려움은 한국 사람들의 직장 스케줄, 라이프 사이클에 익숙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시작하는 업무라 사무실에 더 일찍 도착해야 했습니다. 근무시간이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어져 한국에서의 일과가 더 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웠던 점은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직장 동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고, 업무에도 적응하기 쉽지 않아 긴 시간 긴장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직장에서의 동료들과 상사들은 저를 기다려줬고, 이해해줬으며, 도와줬습니다. 함께 응원해 주고,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함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서로 돕고자 노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절대로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고, 저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

고향에 비해서 한국에는 정말 다양한 음식이 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젓가락 사용법을 익히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숟가락과 포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젓가락질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 젓가락질에 실패해서 음식이 바닥에 떨어질 때도 있고,
너무 오랜 시간 걸리면서 천천히 먹을 수밖에 없어 시킨 음식을 다 못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꽤 잘합니다. 한편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하지만 여전히 해산물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들이 생선을 먹을 때에는 여전히 가게에서 샌드위치를 삽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한국 음식들에 생선이나 생선소스를 첨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차츰 익숙해지는 중입니다.

또 하나 다름을 느낀 점은, 매운 음식입니다. 특히 매운걸 잘 먹는 어린이들에 항상 놀라곤 합니다.
고향에서는 매운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자주 나고 해서 거의 안 먹는 편입니다.
온전하게 한국의 음식을 '맛'보고 싶은데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서 가끔은 오히려 스트레스였습니다.

자연 & 규칙

키르기스스탄은 여름에 덜 덥고 겨울에는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그러나 봄과 가을은 한국만큼 아름답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연 보호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자연은 아름답고 깨끗하며 가치 있는 것이고, 함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키르기스스탄 자연도 아름답지만, 자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 산과 공원이 다소 지저분합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연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고향이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법을 배운다면 키르기스스탄은 한국처럼 아름답고 깨끗할 것 같습니다.

한편 한국 사람들은 규칙에 따라 생활합니다. 모든 곳에, 심지어 집에서든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예로 이웃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늦은 밤 세탁하거나 떠들지 말아야 합니다. 간단한 규칙이지만
저는 그 질서와 규칙에 익숙해지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환경에 익숙해져서
이런 규칙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혼란은 지양, 사회질서는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고향은 법이나 규칙보다 전통이 강한 나라입니다. 80여개의 많은 종족으로
이루어진 키르기스스탄은 전통과 종교가 중요시 됩니다.
다수의 종족과 다양한 종교 차이로 민족 간 갈등이 종종 발생합니다.
전통과 문화의 차이, 종교적 차이 등 다양한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듯 같아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인지 키르기스스탄에는 다른 국적 사람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어두었던 나의 일화

한국 생활을 하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뽑으라고 하면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리는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기사님은 정거장을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 지 몰라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서서 정차해야 할 정거장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폭우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는데, 저는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걸어오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랬을까, 어려서 때문이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머리 속 가득 맴돌았던 날.

고향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면 "문제는 곧 해결될 거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도전과 어려움이 꼭 끝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내 삶 속에서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 날씨, 직장, 대인관계, 한국어, 모든 문화가 모두 어려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족도 너무 그리웠습니다. 친구도 없고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큰 나라에서 저 혼자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의 생활에 점차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힘들었던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수주체로 불가능해 보였던 이전에 모든 것들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곳은 개인의 발전을 가능하게 해주고, '나'라는 개인을 인정해주며, 한국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배우고 일하는 게 좋습니다.

전 여전히 한국어로 말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제게 남아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한국어, 한국을 문화적으로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한 공부 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럴 때 '파이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하기 전 항상 '파이팅!'이라고 말하고 시작합니다. 이렇듯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문화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자산인 것입니다. 앞으로의 저의 한국 생활에 늘 '파이팅!'할 겁니다.

키르기스스탄은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전통을 보존하고 경제와 생활수준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전략 방법을 지닌 나라입니다. 한국인들은 역사와 전통문화를 잘 보존해 가며, 동시에 현대적인 기술을 가지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인 인식을 통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래로 빨리 나아가고 있지만 과거를 잊지 않습니다. 한국과 저의 고향 키르기스스탄의 가장 큰 유사점은 사람들이 모두 친절하다는 겁니다. 친구가 되어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타국에서의 적응이 그리 어렵지 않았고, 미래에 대해 걱정도 많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해 주었던 것은 "이해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문화!"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남편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의 나라' 한국을 제 아이에게 보여주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제 언어역량을 더 강화 시킨다면 제가 제 아이에게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싶습니다. 조금씩의 다름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를 이해해줬던 한국의 문화를 더 많이 경험하고, 할머니가 잃어버렸던 것들, 할머니가 어렸을 때 해 왔을 과거의 것들을 아이와도 함께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키르기스스탄의 가족들도 한국에 초대해 한국의 음식, 자연, 예술, 문화를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충남 청년이 바라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화적 시선

임대건_現(주)럭스레고 대표이사

언제부턴가 길을 지나다보면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쌀국수 집이나 중국인이 운영하는 마라탕 집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또한 관광객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주민도 어디서든 쉽게 만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좋은 삶든 국적과 국경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대다수의 시선에는 여전히 차별과 배척이 담겨 있다.

충남의 청년이면서 문화기획자의 삶을 살아가는 나는 그 시선에 조금 다른 방향성을 더하고 싶다.

외국인 주민 비율 국내 1위의 충남, 그리고 두터운 거부 의 벽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12만 7057명이며,

도 총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5.8%로 전국 최고이고, 주민 수로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았다.

외국인과 이민 2세, 귀화자 등 '이주배경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국가로 분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충남은 2018년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천안시는 2021년 4월 기준 총인구 683,649명 중 26,239명으로 매우 많은 외국인이 살아가고 있다.

이에 천안시에는 천안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충남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천안시 외국인 주민문화교류 지원센터,

천안 모이세 등 많은 기관을 운영하여 이주해온 이주민(다문화)에게 많은 지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비율의 산술적 수치와 관의 노력이 무색할 만큼 우리가 '외국인'을 보는 시선은 차갑다 못해 따갑다.

기성세대는 그들을 낯선 나라에서 온 이방인으로 보고 배척하며,

10대 20대는 치안과 위생, 분위기 등을 이유로 들며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벽을 치고 있다.

심지어 천안 대흥동은 외국인이 많아 가고 싶지 않은 동네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통계자료도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2015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를 이웃 삼고 싶지 않다.

라는 반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31.8% 독일이 21.5% 미국이 13.7% 스웨덴이 3.5%로 한국이 가장 높다.

또한 2019년 '충남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과 노동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361명 중 47.9%가 작업장 부속 공간(29.1%), 컨테이너와 같은 임시 가건물(13%), 비닐하우스(1.1%) 등 거주하기 적합지 않은 곳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 이상(27.2%)이 산업재해 경험이 있었으며 28.3%가 병원 치료를 받고 싶었는데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폭언, 폭행, 임금체불, 차별 등 인권침해 경험 중에서 고용주나 관리자, 동료로부터 욕설이나 폭언 경험이 36.4%, 차별 경험이 25.3%로 다른 인권침해 경험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해 여전히 욕설과 차별이 만연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충남의 이주노동자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반자가 아닌 다름을 기반으로 차별과 배척의 벽을 세우고 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문화의 힘

나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너무 안타깝고 개선이 되었으면 한다. 직접 겪지는 못했지만 대한민국도 1960,70년대에 많은 분들이 외국으로 건너가 이주노동자로 일했으며 그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다고 배웠다. 우리는 그들을 이야기할 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느끼며 왜 정작 우리 주변의 외국인 이웃들에게는 냉담할까? 수년간 대흥동에서 문화기획을 하며 많은 고민과 다양한 기획자들과의 논의 끝에 나는 그들을 '외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보는 시선을 갖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숙제라고 느꼈다.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도 교류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단체생활 혹은 대학교 때 룸메이트만 생각해도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들 중 가장 쉬운 방법은 의식주 문화의 공유라고 생각한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지내며 서로에 대하여 이야기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규모의 차이 일뿐 이주노동자와 시민들이 해야 할 교류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같은 옷을 입어보고, 서로의 요리를 먹어보고 같은 동네에서 생활하며 공감대를 쌓아가는 것, 그것이 다른 문화를 받아드리는 것에 있어 가장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

그 첫 단추를 끼우는 행위는 축제가 될 수도, 동아리 활동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단순한 영상 시청이나 교육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기 위해서는 기관의 정책적인 지원과 법 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간의 기획과 문화적 교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함께 희망을 꿈꾸기 위한 문화적 시도

나는 서울권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로 활동 중 충남 지역 청년 아티스트들과 공연을 함께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공연사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충남의 인재 풀과 인터페이스로도 충분히 서울권에 맞먹는 문화 콘텐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 천안에서 2014년부터 레이블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신부동에 연습실을 두고 지역 아티스트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2019년 대흥동에 위치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입주하여 청년 기획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을 진행해 왔다.

사무실이 대흥동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2020년 대흥동에 자리 잡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부정적 인식을 문화예술로써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시키고 대흥동에 대한 지역 브랜딩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대흥동에 있는 외국 음식점이 주는 인식, 천안역을 다니는 외국인들이 주는 인식 등을 개선하고, 한 걸음 나아가

더불어 사는 사회, 이국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사는 이색적 도시 브랜딩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 이태원을 모티브 삼아 외국음식점 소개책자 제작,

외국 음식점 홍보영상 제작, 이주노동자와 함께 음악을 만들고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것 이였다.

물론 이런 작은 움직임으로 대흥동을 이태원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이런 움직임이 모아진다면

분명 이주노동자와 함께 희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날이 올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 기획은 공모했던 기관에서 말도 안 되는 기획이란 평가를 받아 결국 실행되지 못하고 아직 내 컴퓨터에 파일로 남아 있다.

물론 나의 부족함으로 기인한 평가겠지만 조금은 이주노동자와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기획은 그것만을 위한 예산으로만 진행되어야 한다는 편견이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청년이고 언제나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젠가 내가 이 멋진 프로젝트를 실행 했을 때 이 글을 읽은 당신도 그곳에 함께해 주기를 바래본다.



우리의 시선④

[충북문화재단]

“인권, 개나 줘버려!”

김응필_이주민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 목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세계인권선언문 제 1조의 내용이다. 제 2조에서는 1조의 모든 인간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떤 종류의 차별이 없이 세계 인권 선언에서 선언하고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제 3조 이하에서 모든 인간이 누릴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것들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이 제 3조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이다. 제 4조는 노예, 이어서 제 5조에서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세계 제 2차 대전을 통해 경험한 인간의 잔학성과 야만성에 대한 반성,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인간의 바람이 2년이라는 시간의 국제 사회의 회의를 거쳐 1948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글자 그대로 이것은 ‘선언’에 그칠 뿐이고 개인이든 국가든 이 선언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고 배상하고 하는 구속력과 강제 집행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선언의 실효성은 오로지 이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에 의해 담보될 뿐이다.

최근에 미국에서 발생한 인종 간의 차별과 혐오 범죄를 보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권분야에서 과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나라가 인권 분야에서 보여준 많은 공로들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필자도 미국 생활 당시 유학생 신분으로 있을 때 아무런 의료보험도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4만 달러에 달하는 아들의 수술비를 거의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준 경험을 갖고 있다. 하지만 COVID-19이라는 팬데믹 상황아래서 자행되고 있는 소수 인종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인간의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고 하는 인권 선언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 이것은 비단 미국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칭해지던 유럽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작년 12월, 경기도 포천 비닐하우스 형태 기숙사에서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사망 원인은 간경화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간경화로 인해 숨질 정도의 건강상태였다면 비전문취업비자를 발급받아 농업에 종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여성은 한국에 입국할 당시 농업에 종사할 정도의 건강 상태였었을 것이고, 그것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재발하고 악화되어 갔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게다가 숨지기 전 며칠 동안의 기온이 급강하 했고 비닐하우스 형태의 기숙사에 공급되는 전기 용량으로는 전기장판과 같은 온열 난방 기구를 사용함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고, 그 결과로 누전 차단기가 자주 작동했었다고 하였다. 결국 이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열악한 주거 환경과 과도한 노동 환경이 한 여성을 죽음으로 인도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 캄보디아 여성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인권이라는 것을 생각한 한국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 사건이 보도되고 나서 후속 보도에 관심을 두고 정말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았는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라도 확인을 해 본 한국인이 얼마나 될까?

이 캄보디아 여성의 죽음으로 이주민 노동자들의 숙소에 대한 전수조사가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이 캄보디아 여성을 고용했던 고용주는 이주민 노동자 권익 단체에 의해 고발이 되어졌다. 그런데 누군가가 필자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주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건의 고용주에게 지방 정부 차원에서 시정 명령이 내려졌을 텐데, 이 고용주가 당장 기숙사를 지을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주민 노동자들을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 거주하게 했다는 것이다. 여기 까지였다면 정말 칭찬받아 마땅했을 테지만 애초부터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주거 환경을 제공했던 고용주가 정말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마음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했을 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필자가 들은 것은, 고용주가 노동자들을 자기 집에 들이는 대신 자신이 비닐하우스 기숙사에 들어가 살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기사를 통해 이주민 노동자들이 거주했던 기숙사 시설이 어떤지를 확인했던 분들은 그곳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 곳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곳에 한국인 고용주가 가서 산다고? 필자가 더욱 부끄러웠던 것은, 이런 내용을 전해주시던 분이 이런 일이 말이 되느냐면서 정부를 비난하는 조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다. 말이 안 될 것 같으면서 말이 되는 것이, 이 고용주가 고용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과연 그런 곳을 기숙사로 제공을 했겠는가 하는 것이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자. 버섯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민 노동자 커플
남녀가 있었다. 농장에서 제공한 기숙사 건물에 이 커플이 들어가 살았고
방음이 잘 되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두고 바로 옆방에 한국인 남자 매니저가 같이 생활을 하였다.
그런데 일을 하기 시작한 첫 날부터 이 매니저가 말레이시아 여성 노동자에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다고 한다. 이 여성이 한국인이었다면 차마 그렇게 할 생각도 못할 일들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성추행을 한 것이다. ‘딸 같아서’라는 이유를 대며 친근감을
표한다고는 했지만 엄연히 성추행에 해당된다. 그런 일들이 무려 1년 이상 지속되었다.
심지어는 일을 마친 후에 이 매니저가 성관계 영상을 자기 방에서 틀어 놓고
옆 방 이주민 노동자 커플이 들을 수 있도록 노골적으로 소리를 높여 놓았다.
거기다가 이 매니저는 불법 카메라까지 설치해 서 자신의 성적 관음의 욕구를 채우다가
커플 남성에게 발각되기 까지 했다. 이주민 노동자 커플은 고용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고용주는 묵살했다. 결국 공중파 보도국에 제보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 이주민 노동자 커플은 농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고용주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중재를 신청했고, 이주민 노동자 커플을 향해서는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했단다.
이주민 커플의 ‘코리아안 드림’은 잠시 중단되었다. 앞선 사례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할 수 있겠다.
이 이주민 노동자 커플이 한국인이었다면 매니저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고용주는 시정 요구에 대해 묵살할 수 있었을까?

인간의 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거나 심히 부족한 사람들일지라도
조금만 설명을 해 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다.
왜 문화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가? 그 이면에는 인간에 대한 상호 존중과 배려, 곧 인권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서로 다름에 대해 인정하고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최소한 이렇게 만큼은 하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인간은 최대한 같은 정도의 존중과 배려를
향유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인간이 가진 문화의 다양성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말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피부색에 따라, 국가에 따라, 사는 지역에 따라,
사는 정도에 따라,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 차별을 두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또한 인간이 같은 인간을 차별할 그 어떤 권리를 부여했다고
하는 기록도 찾아볼 수 없다. 성경의 기록은 고사하고라도,
인간은 점점 더 인간 차별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본다.
그 차별은 점점 더 폭력적인 것이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좀 더 광범위하고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류의 진행 방향에 대한
탐색은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고 고민해 본다면 능히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다. 성경을 좀 더 인용을 해 본다면,
인류의 종말의 때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이 있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마태복음 24장) 인류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을
펼치시는 분도 물론 있겠다. 하지만 인간이 같은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고 존중해 주지 않고
편파하고 혐오하며 그것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표출되면 그것이 곧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은 지금도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있지 않은가? 자원의 고갈이나
기후의 변화로 인한 지구의 멸망보다 인간의 인간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전쟁으로
인류의 종말이 다가올 것이 예상되지 않는가?

그렇다고 가만히 뉘 놓고 앉아서 인류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기에
우리의 심장이 너무 뜨겁다.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그리스천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크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저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이 지극하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아무런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한다.
말과 더불어서 행동으로 사랑해야 한다. 비단 기독교적 시각이 아니라도
이런 인류애를 가진 사람들이 뜨거움과 열정으로 지금도 사랑을 실천하고 있음을 안다.
비닐하우스에서 쓸쓸하게 죽어간 여성 노동자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에
그저 속만 끓이고 성적인 모멸감을 참아내야만 했던 커플을 위해, 그 외에도 이런 저런 모양으로
그들에게 인권이라는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들에게 감사하고 또한 죄송하다.

4월 22일, 평택 항 신컨테이너 터미널 작업 중에 23살의 청년이 생을 달리했다. 산업재해다.
그동안 그렇게 죽어간 꽃다운 청춘들의 죽음을 잊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족들이 힘겹게
투쟁해오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 그런 투쟁의 열매들이 입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도.
바라기는 이주민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인간 존엄과 평등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만 아니면 돼'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욕망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작은 관심과 그로부터 나오는 미세한 몸짓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세종시문화재단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7(어진동 593)
www.sjcf.or.kr

대전문화재단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32 대전예술가의집
www.dcaf.or.kr

충남문화재단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www.cacf.or.kr

충북문화재단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94번길 7충북문화예술인회관 4층
www.cbfc.or.kr

2021 충청권 문화다양성 이야기 모음집

저 편에서, 4인의 시선

제작업체: EGOS DESIGN



세종문화재단
SEJONG CULTURAL FOUNDATION

대전문화재단



충남문화재단
Chungnam Cultural Foundation



충북문화재단
Chungbuk Cultural Foundation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본 이야기집의 저작권은 상기 기관(충청권 문화재단)이 소유하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